

# 금융지리학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부터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까지

이재열\* · 박경환\*\*

## Evolving Financial Geography: From the Marxist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o the ‘Re-Politicizing’ Cultural Economic Geography

Jae-Youl Lee\* · Kyonghwan Park\*\*

**요약:**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제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주요어:** 지리정치경제, 문화경제지리, 금융화, 통치성, 금융주체

**Abstract:** Financial geography is an evolving subdiscipline in economic geography. This paper identifies and reviews three important ‘waves’ constitutive of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geography: including the ‘first’ wave before 1990s when finance was regarded as a byproduct of the over-accumulation process in production sphere in the Marxist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radition; the ‘second’ wave in the mid-1990s during which financial geography was firmly established as a subdiscipline, influenced by the cultural turn and poststructuralist thoughts; and the most recent ‘third’ wave after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urged financial geographers to take power and politics more seriously and ‘re-politicize’ with the analytical ideas of governmentality and financial subjectification from a neo-Foucauldian perspective. These waves have helped financial geography become a practice-oriented academic discourse, in which different philosophical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ejaeyoul@chungbuk.ac.kr)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park3@gmail.com)

thoughts, foci of analytical level and object, renditions of the subject, perceptions of power and politics, and geographies of finance and financialization coexist and also compete and contest one another.

**Key Words** :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cultural economic geography, financialization, governmentality, financial subjects

## 1. 서론

“지난해 50~64세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퇴직 연령은 평균 49.5세에 불과했다. ...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남은 ‘소득 크레바스’가 [즉, 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 평균 12년 6개월에 달한다는 의미다.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 전문가들은 노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당장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연금형 금융상품 중 기본 세액공제 한도가 가장 크고 ... 소득세도 대폭 줄일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 2021a)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말을 빌려 “당장 가입”을 독려하는 위의 기사를 소재로 금융과 얽혀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금 시장의 민영화와 개인화부터 시작해보자. IRP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가입하는 공적연금 제도와 달리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민간금융 업체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개인’ 연금 상품이며, 지난 5년간 국내 IRP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가입자는 75만 명에서 208만 명으로, 잔액은 10.8조원에서 25.4조원으로 급증했고(헤럴드경제, 2021), 2019년 IRP는 221.2조 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1). 2020년 말을 기준으로 IRP 잔액은 33.6조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경제, 2021b).

이와 같이 개인책임과 민간시장에 의존한 ‘신자유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은 자유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다. IRP는 201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제도화되었고,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는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IRP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IRP 시장 형성에 개입한다. 공적연금 정책의 공백기라 할 수 있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의 관리 및 거버넌스 책임을 민간과 개인에게 이양한 측면도 있다. “12년 6개월에 달하는” 소득 공백기는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지어 언급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측면인 노동시장 유연화 때문에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소득의 유무가 IRP 가입 조건인 것을 감안하면, 제이미 펙이 말한 신자유주의적 ‘근로복지형(workfarist)’ 국가의 한국판 전략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Peck, 2001).

그러나 IRP의 공간성은 국가 수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개인, 장소, 글로벌 차원에서도 명백한 지리적 함의를 가진다. 이는 금융상품으로서 IRP의 구성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적립액의 70%까지 ‘실적 배당형 펀드’에 할당해 IRP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한국경제, 2021a). IRP 가입자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을 30%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특성을 강조하며 각종 경제지 보도와 영업 창구 상담을 통해서 IRP 가입자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저축인 주체’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가적 투자자 주체’로 거듭나도록

요구되고 있다(Hall, 2012; Lai, 2017; 5절 참조). 예를 들어, 한국경제(2021b)는 최근 기사에서 2020년 “평균 IRP 수익률[이] 원금 보장형은 연 1.56%, 비보장형[은] 연 13.6%를 기록”한 사실을 소개하고 “75%는 원금 보장형에서 낮잡” 자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개인들”만이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2020년 말 IRP 잔액의 73%에 해당하는 24.8조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입되어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상품의 구조상 IRP는 금융시장의 결정과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IRP 가입자들의 연금은 서울의 여의도를 비롯한 국내 금융센터에서 개발되는 투자 상품과 이와 연계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주요 글로벌도시의 금융센터의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IRP라는 금융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의 할부 금융부터 농지연금제도, 주택시장의 모기지 금융,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끌’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극단적 레버리지(leverage) 투자 문화에 이르기까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이러한 ‘금융화’의 맥락에서 경제지리학계의 금융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나이절 쓰리프트, 앤드류 레이슨, 린다 맥도웰 등의 선구적인 업적을 통해서 금융지리학은 분과 학문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도 *Progress in Human Geography*에 게재된 새라 홀(2010~2012년), 브렛 크리스토퍼(2014~2016년), 매뉴얼 앨버스(2018~2020년)의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통해서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8월 ‘금융지리학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s on Financial Geography)’가 조직되어 연구 활동과 성과가 온·오프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으며,<sup>1)</sup> 국내·외 경제지리학 교재의 최신 개정판에서는 금융지리 챕터가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Clark, *et al.*, 2018; Coe *et al.*, 2020; 이희연,

2018; 박경환 외, 2021). 2020년 말에는 루트리지 출판사에서 금융지리학계의 연구 동향을 총 망라한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가 발간되었다(Knox-Hayes and Wójcik, 2020).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금융지리학 분야의 발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금융지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국내에도 일부 존재하지만(최재현, 1995; 김창현, 2014), 이 분야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점검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금융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이 주도했던 ‘제1의 물결’(2절), 1990년대 중반부터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사이에 포스트구조주의 문화경제지리학 접근법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제2의 물결’(3~4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문화경제지리학에 대한 ‘재정치화’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제3의 물결’(5절)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시기의 구분은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단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리학은 지리정치경제학 및 문화경제지리학의 다양한 개념, 이론, 방법론, 사례들이 공생하며 경합·경쟁하는 담론과 실천의 ‘아상블라주(assemblage)’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 두드러짐의 일시성과 임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결’의 메타포를 사용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지리학에 대한 중요한 정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터내셔널 지리학 백과사전에 따르면, 금융지리학은 “오늘날 자본주의 재구조화에서 금융, 화폐, 시장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변화가 공간상에서 초래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분야이며, “[구체적] 연구는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 자본의 분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국내·외 금융센터의 발전 과정에서 장소와 공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sup>2)</sup> 1990년대까지의 ‘화폐와 금융의 지리학(geography of money and finance)’ 국면에서는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서 통화와 금융의 문제가 정치·사회·문화 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Corbridge *et al.*, 1994; Leyshon and Thrift, 1997; Martin, 1999; Leyshon, 2000). 다시

말해, 화폐와 금융을 독립변수로, 정치·사회·문화를 종속변수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의 '컨테이너' 또는 무대로서만 장소와 공간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금융의 지리를 구성하는 3가지의 축이 서로서로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장소와 공간은 제한적 행위주체성만 행사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이후의 '금융지리학(financial geography)'에서는 "화폐와 금융에 대한 이해가 화폐와 금융 너머의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Knox-Hayes and Wójcik, 2020, 1). 금융과 지리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존재론적 전제 하에서, 금융지리학은 금융을 "다른 [지리적] 현안을 탐구하는 렌즈"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Aalbers, 2018, 916).

## 2. 제1의 물결: 금융의 지리정치경제학

입지론과 신고전 경제학에 영향을 받은 논리실증주의 경제지리학에서 화폐와 금융은 분석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자본, 노동, 정보는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다시 말해 "화폐에 대하여 지역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입지론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Martin, 1999, 3; Leyshon, 2000, 432 재인용).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금융의 지리학', '금융지리학' 모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으며,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인문지리학에서 금융에 대한 관심의 뿌리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Leyshon, 2000; Aalbers, 2015). 이후 1980년대까지 이르는 맹아기의 연구는 크게 두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도시-사회 공간 형성 및 재구성에서 주택금융조합과 모기지(mortgage)의 역할에 분석이 집중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관계에서 국가 간 채무 관계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했다. 한 마디

로 금융은 도시지리적인 현상과 정치지리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Aalbers, 2018).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주로 '지리정치경제학'(Sheppard, 2011; 박경환 외, 2021)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지리정치경제학은 불안정한 자본주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동된 공간적 불균등발전 과정과 패턴을 집중 조명하는 접근법을 말한다.<sup>3)</sup>

우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금융과 도시-사회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모기지 금융 접근성, 그에 따른 주택 가치의 공간적 차별화의 문제를 다뤘다(Boddy, 1976; Williams, 1976; 1978). 여기에서는 도시의 주택 시장에서 내부도시(inner-city)를 고립시키고 그곳의 쇠락을 촉진하는 금융 관행, 즉 레드라이닝(redlining), 블록버스터(blockbusting) 등의 실태가 비판적 검토되었다.<sup>4)</sup> 이러한 도시의 특정 지구 사람들에 대한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밀집한 곳에 집중된 은행 지점 폐쇄와 그에 따른 금융 접근성 약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Leyshon and Thrift, 1995). 한편, 국제적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글로벌북부(Global North)와 글로벌남부(Global South)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었다. 특히 글로벌남부의 정부에게 제공되는 국제적 민간 대출 거래에서 채권국 정부의 이익이 반영되는 현실이 부각되었다(Fryer, 1987). 이때에는 '금융화'에 대한 초창기적인 정의도 출현했는데, 이는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문서상에서 투기적인 조작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Fryer, 1987, 429; Aalbers, 2015, 301 재인용; 5절 참조).

이와 달리, 데이비드 하비는 "투기적 조작"을 문서에 쓰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과 본질적으로 결부된 '공간적 조정'을 거쳐 도시의 '건조환경'에 새겨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설명했다. 이는 '자본의 도시화 논제'로 일컬어지며(Harvey, 1982; 박경환 외, 2021, 177-182), 추후에 '마르크스주의 금융지리학'(Bond, 2020)으로 불리게 되는 학풍의 기초가

되었다.<sup>5)</sup> 실제로 하비는 “이전의 지리학자들이 경제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을 거의 논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Bond, 2020, 70), “금융을 주변부화했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맹점을 해결했다(Christophers, 2015, 211). 투기적 금융과 ‘건조환경’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을 기초로 닐 스미스는 공간적 불균등발전을 이론화했고(Smith, 1990), 보다 최근에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보다 광범위하게는 ‘도시의 금융화’에 대한 논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Aalbers, 2019; 2020). 그래서 금융과 도시-지역개발 간의 관계에 대한 하비의 설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하비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자본주의의 위기 경향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본질적 모순이 작용한 결과이다.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사용량을 어떻게든 줄여야하고, 이는 임금 하락이나 실업의 증가로 이어져 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시장 수요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비에 따르면(Harvey, 1982), 자본의 (과잉)축적 욕구와 그에 따른 잉여노동의 필연성 간의 모순적 관계로 야기된 위기는 서로 연관된 2가지 방식으로 -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sup>6)</sup> 하나는 ‘시간적 조정’으로 금융수단을 동원해 미래에 생성될 것으로 예측 또는 가정되는 자본을 현재로 가져와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수입을 담보로 잉여노동에게 제공되는 신용 등이 시간적 조정 전략에 속한다. 이처럼 하비는 금융을 과잉축적된 생산자본의 부산물로 여기며 시간적 조정을 설명하고, 금융이 ‘수용’적 기능을 하며 자본의 축적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속시키는 전략임을 강조한다.<sup>7)</sup>

하비는 위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해결책으로 공간적 조정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산업시설 확충이나 부동산 개발과 같은 도시의 건조환경 조성 프로젝트에 과잉축적된 자본을 투입하고 잉여노동을 흡수하지만, 여기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축적의 과정은 금융의 수용적 역할보

다 ‘투기적’ 기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앞의 주 참조). 그리고 하비는 금융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이 자본의 흐름을 통제 또는 조작하며 내부도시의 쇠락을 조장하고 개발의 차익을 착취하는 ‘탈취에 의한 축적’(Harvey, 2003) 과정에도 주목한다(Harvey, 1973). 이 또한 ‘자본의 도시화’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축적의 과정을 조성하기 위한 투기적 자본의 전략인 것으로 하비는 설명한다.

“과밀화가 극심한 계도 지역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주택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거래] 가격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이 내부도시 지역에서 모기지 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유다. 내부도시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토지에 대한 재개발의 분위기가 언젠가는 “무르익는다.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모기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업지구로의 재개발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Harvey, 1973, 140, 원문 강조; Leyshon, 2000, 435-43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금융과 공간적 불균등발전 간의 관계, 보다 정확하게는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금융을 통해서 공간적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한편, 닐 스미스는 불균등발전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Smith, 1990). 그에 따르면, 과도한 물리적 집중은 집적불경제의 원인이 되어 축적의 한계에 도달하면 투기적 금융 자본은 (한때 푸르렀던 초원을 황폐화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메뚜기 떼’처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미개발 또는 저개발 지역으로 향하며 기존의 공간적 차이를 상쇄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재연되는 지리적 집중의 문제는 또 다른 이동과 분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지리적 ‘차별화(differentiation)’와 ‘균등화(equalization)’ 간의 변증법적 관계의 작용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전과 저/미

개발 공간 사이를 '시소'처럼 오가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성 때문에 지리적 불균등발전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은 투기적 금융에 의존한 성장과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앞서 논의한 바가 같이 투기적 금융은 과잉축적의 문제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지만, 생산의 영역에서 쓰임새를 찾아 과잉축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차익의 지대만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버는 “과다한 투기는 ... 자본을 실제 생산으로부터 이탈시켜 결국에는 평가절하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Harvey, 1982, 398; Bond, 2020, 75에서 재인용). 이런 입장에서 생산적인 효율성과 가치가 부실한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은 경제적 활력의 잣대라기보다 위기의 끝을 향해 치달는 신호일 뿐이다(앞의 주 참조).

### 3. 전환기: 화폐와 금융의 지리학

1990년대 초반까지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미약한 상태로 화폐와 금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와 금융은 도시의 사회-공간적 구성이나 국가 간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 관점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결부된 공간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 담론에서 금융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크리스토퍼가 지적하듯이 “주변부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

“[지리]정치경제학 [담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왔다. 마르크스는 ... ‘법칙’ 수준의 일반화에서 오직 생산만을 강조했다. 금융을 비롯한 다른 것들은 우연성이나 특수성의 문제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이론화의] 위계질서는 ... 지리정치경제학에서 만연한 문제이다. 경험적 수준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론화 노력에서

금융은 대체로 주변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Christophers, 2015, 211)

그러나 1990년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화폐와 금융의 지리학’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Leyshon, 1995; 1997; 1998; 2000). 이러한 변화에 나타난 구체적 특징의 양상은 당시에 출간된 3권의 핵심 서적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론 마틴(Martin, 1999)의 편저서 『화폐와 공간경제(Money and the Space Economy)』, 스튜어트 코브리지, 나이절 쓰리프트, 마틴(Corbridge et al., 1994)이 함께 엮은 『화폐, 권력, 공간(Money, Power, and Space)』, 앤드류 레이슨과 쓰리프트(Leyshon and Thrift, 1997)의 공동 저서 『화폐/공간(Money/Space)』이 포함된다. 이 절에서는 이 책들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우선, 『화폐와 공간경제』에서 마틴은 ‘화폐의 지리’를 새로운 분과학문 분야로 규정하며 기존 경제지리학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했다(Martin, 1999). 특히 지역발전의 문제와 연관된 화폐와 금융의 지리적 현안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사례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공통된 관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챕터들은 대체로 지리정치경제학 및 제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입지, 제도, 규제(조절), 국가의 변동과 관련된 화폐와 금융의 문제를 은행, 금융센터, 지역경제, 민영화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검토한다. 국가 스케일에서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를 사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은행의 재구조화 과정과 결과를 살핀다. 국가 간 비교연구는 벤처캐피탈 부문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발전한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경영자매수(MBO, management buyout)에 집중된 영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간 차이가 강조된다.<sup>9</sup> 로컬 스케일에서는 대안적 지역화폐의 등장, 런던, 멜버른, 시드니, 몬트리올, 토론토 등 주요 ‘글로벌도시’에 형성된 금융센터, 금융기법을 통한 슈퍼마켓의 인수합병이

미국에서 초래한 지역 간 불균등 등의 현안을 다룬다. 그리고 초국적 차원에서 자본의 초이동성에 따른 케인스주의 국가의 몰락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공간적 조정의 패턴을 보이는 연기금 투자를 집중 조명한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1980년대의 금융에 대한 연구와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경직된 구조결정론과 경제결정론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컬과 국가의 행위주체성(agency)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화폐, 권력, 공간』도 기본적으로는 지리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취하며 ‘화폐의 지정학’을 논하지만(Corbridge *et al.*, 1994), 19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당시에 막 시작되었던 경제지리학의 ‘문화적 전환’(Thrift and Olds, 1996)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를 비대칭적인 권력이 작용하며 장소의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관계로 이해했던 편저자들의 인식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생산중심주의에 치중된 기존의 경제지리학 지식과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통화 및 금융의 관계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책의 구체적 내용은 『화폐와 공간경제』와 마찬가지로 3가지 공간적 스케일의 차원에서 발생했던 당시의 현안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가 및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화폐 및 금융시스템, 브레턴우즈 시스템의 붕괴, 케이맨제도과 같은 역외금융센터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화폐의 지정학’을 살핀다. 둘째, 유럽 통화통합의 움직임 등을 검토하며 글로벌화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리의 종말’이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셋째, 로컬 스케일에서 금융시장 탈규제화 효과의 지역적 차이, 런던의 도시성(The City)과 같은 금융센터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적 집적의 이익, 투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공간적 마찰 등의 현안을 소개했다. 이와 같은 화폐와 금융의 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 주제의 다양화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목을 끄는 신선한 변화였으며, 이의 단면을 스웨덴의 한 경제지리학자가 하버드대학에서 경험했

던 “우연한 마주침”의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년 전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도서관에서 예기치 못했던 우연한 마주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최신 인기 도서를 진열하는 특별 서고가 마련되어 있었다. 바로 거기에 ... 코브리지, 마틴, 쓰리프트가 함께 엮은 푸른색 표지의 『화폐, 권력, 공간』이 비치되어 있었다. 책의 상태가 관심과 인기의 수준을 가늠할 잣대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하버드대학 톱10 목록의 경쟁 도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털너털해져 있었다.”(Laulajainen, 1999, 129)

보다 획기적인 변화의 신선함은 『화폐/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레이슨과 쓰리프트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 기반을 둔 금융에 대한 분석과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이해와 설명의 방식은 “감화”를 일으키는 면도 있지만 “일상적 실천”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 자취를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Leyshon and Thrift, 1997, xiv-xv). 이는 포스트구조주의에 입각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이 등장해 절대적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보편타당한 진리와 계몽주의적인 진보의 정치를 성찰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Leyshon, 2000). 이런 맥락에서 레이슨과 쓰리프트는 상품 관계에 기반한 경제결정론의 함정을 피하고 일상적 실천에서 문화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화폐의 작용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인류학 및 문화연구에 기초를 둔 ‘담론적인 접근법’을 추구함으로써 화폐와 금융의 경제적 성격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속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화폐/공간』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탈규제화, 민영화된 금융의 세계를 자본의 권력 뿐 아니라 ‘해석적 권력’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적 금융상품 범람, 불확실성 및 위험 회피 필요성의 일상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엄청난 정보의 신속한 흐

를 때문에 글로벌화된 금융시스템에서는 해석적, 성찰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다(4절 참조). 이와 같은 ‘유령 국가(phantom state)’에서 ‘자기생성적인(autopoietic)’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출현했지만, 런던의 도시와 같은 장소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파악되었다. 자본과 함께 투자자, 제도적 기관, 전문가,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 밀집된 사회-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며 금융시장의 정보, 지식, 담론에 대한 해석적 권력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 제2의 물결: 금융의 문화경제지리학

문화경제지리학은 ‘신’ 경제지리학의 한 갈래로,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분야이다(박경환 외, 2021, 74-76). 경제지리학에서 문화적 접근의 출현과 발전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인문지리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에 기초한 ‘문화적 전환’의 힘을 입은 바가 크다(Thrift and Olds, 1996). 그래서 문화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 과정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주목하며 보편화된 거대 담론에 기초한 이해와 설명을 지양한다. 이는 수량적 일반성과 법칙을 추구하는 논리실증주의 공간분석 전통이나, 경제와 구조에 기대어 결정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문화경제지리학에서는 ‘실천 지향적인’(Jones and Murphy, 2010a; 2010b; Jones, 2014) 접근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자의 ‘행위주체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에서 실천은 “경제공간을 구성, 재생산하는 사회적 행동”을 뜻하며, “안정화”, “루틴화”된 활동과 “즉흥적인”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Jones and Murphy, 2010a, 366). 다른

한편으로, 실천은 “행위자와 구조가 서로를 상호구성(co-constitute)하는 맥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Jones and Murphy, 2010b, 303).<sup>9)</sup> 이런 견지에서 자본주의와 계급관계는 행위자들의 실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경제지리학자들은 계급 뿐 아니라 국가성, 민족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연령 등 다각적인 ‘정체성’과 ‘위치성’으로부터 비롯된 ‘중층결정’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보편성보다 지방성(provinciality), 일반성보다 특수성, 필연성보다 우연성(contingency)을 중시한다.

그리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의 영향을 받아 인간 뿐 아니라 동·식물, 물질과 사물, 기술, 지식 등 비인간(nonhuman) 행위자도 나름대로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며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적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은 각각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뭉쳐져 집단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뒤섞여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집단적, 집합적 배열의 상태는 ‘아장스망(agencement)’이나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일컬어지기도 한다(Latour, 2005; Olds and Thrift, 2005; Callon, 2007; Anderson and McFarlane, 2011; 박경환, 2014).<sup>10)</sup> 이런 관점에서 ‘경제인’은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진 인간 행태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인 행위 간 네트워크의 관계적 효과인 것이다(Hall, 2010). 이러한 관계적 인식론은 “경제나 문화와 같은 것은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Castree, 2004, 206). 그리고 문화경제지리학에서 담론과 실천은 경제와 문화 간의 관계를 현장의 수준에서 행위자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진다. 이는 담론의 의미가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형성 및 재구성되는 현실을 강조한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Butler, 1993, 2), 수행성은 “담론을 반복적



으로 인용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담론이 말하는 효과가 창출된다.” 다양한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담론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경제지리학에서 자료의 수집은 대체로 면접조사, 참여 관찰, 민족지 등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금융은 문화경제지리학의 초창기부터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고(Tickell, 2003), ANT나 수행성 분석 같은 혁신적인 연구 방법이 수용된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런던의 금융가 더시티에 대한 나이절 쓰리프트와 린다 맥도웰의 선구적인 연구에 잠시 주목해보자. 우선 쓰리프트는 ANT에 기반한 담론 분석을 통해서 브레턴우즈 체계 붕괴 이후 글로벌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더시티가 근접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Thrift, 1994). 전자거래의 일반화와 글로벌화 때문에 금융업에서는 물리적 집적의 중요성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자거래와 글로벌화 때문에 더시티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집적 장소를 넘어서, 금융인, 관료, 투자자, 브로커, 전문가 등의 인간 및 돈, 기술, 소문, 전자화된 문서, 금융 지표와 지수 등 비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결절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더시티로 몰려들었고, 더시티는 이를 포착하고 이해하여 유용한 정보와 지식으로 재가공해 재현할 수 있는 해석적 권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소 기반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문화의 공유는 더시티 전문가들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되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맥도웰은 페미니스트지리학 관점에 입각해 더시티의 변화와 젠더와의 관계를 연구했고, 여기에서는 민족지에 기반한 수행성 분석이 활용되었다(McDowell, 1997). 전통적으로 더시티의 직장문화는 상류층의 온정적인 남성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에서 가벼운 규제의 기초는 명예와 존경을 중시하는 ‘젠틀맨 자본가’ 담론을 수행하는 직장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Pryke, 1991).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더시티로 진입하는 여성이 증가하며 기존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자본주의’ 직장문화에 일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McDowell, 2010). 남성중심의 전통에서 권위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변화의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감수성과 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틈을 파고드는 여성도 있었다. 맥도웰은 특히 신체를 적절하게 동원하여 정보와 지식을 재현할 때 권위를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일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신체도 권위적 금융 정보와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박경환 외, 2021, 75-76).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맥락 중의 하나는 더시티를 주도하는 금융기관의 성격과 업무의 관행이 변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더시티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의 문화가 형성했던 영국의 ‘상업’은행이 주도했었다. 그래서 고객들은 거래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체로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대륙에서 새롭게 유입된 ‘투자’은행이 증가하면서 직원의 전문성을 호소하며 고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업계 관행이 생겨났고, 이런 전환의 틈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젠더화의 기회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이상 2가지 문헌은 오늘날 금융에 대한 문화경제지리학적 분석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지침이 되는 고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포스트구조주의 사상과 방법론, 특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수행성 분석을 밑거름으로 금융적 삶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미시적 실천과 과정, 문화적 장소로서 젠더 및 육체(corporal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Hall, 2010; 2020; Zook and Grote, 2017). 이처럼 문화경제지리학 접근법은 경제를 구성하는 미시적 실천과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일반적 수준에서 금융의 거시적 기반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지리정치경제학, 특히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맹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2절 참조). 이는 구조와 행위자, 글로벌과 로컬, 추상성과 구체성, 경제와 문화, 공간과 장소 등 이분법적

범주에 배태된 존재론적 위계성의 문제에 도전하는 ‘평탄(平坦) 존재론(flat ontology)’에 기초한다(Latour, 2005; Jones *et al.*, 2007).

그래서 문화경제지리학 접근법의 방법론적 미시성은 폐쇄적 협소성과 등치될 수 없다. 미시적 분석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의 ‘관계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통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금융, 규제기구, 정부개입, 대외정책, 경제학 이론, 경제언론 등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과 담론/실천 네트워크의 작용에 주목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담론이 금융시장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Clark and Thrift, 2005; Hall, 2006). 예를 들어, 고든 클락 등은 금융 전문 미디어를 통해서 생성되는 담론적 프레임이 금융센터에서 일하는 투자자와 펀드매니저의 근무 관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했다(Clark *et al.*, 2004). 이와 유사하게, 앤디 파이크는 ‘주주가치’처럼 주요 금융센터를 거점으로 확산되는 금융화 담론이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했다(Pike, 2006). 2000년대 동안 미국이 경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몰락 모두는 모기지 금융 증권화 모델과 관련이 깊다(Hall, 2010).<sup>11)</sup>

이처럼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에서 금융시장은 “네트워크, 신체, 기계, 개념, 담론적 해석, 지식, 정보 [등의] 앙상블”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 재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Hall, 2020, 87).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전 세계 주식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자동화된 초단타매매(HFT, high-frequency trading) 기술로 형성된 자본시장의 지리적 성격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Zook and Grote, 2016).<sup>12)</sup> 이 연구에서 HFT 기술은 칼롱이 ‘계산의 집합장치(calculative collective devices)’ 또는 ‘시장장치(market device)’로 언급한 것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된다(Callon and Muniesa, 2005; Muniesa, *et al.*, 2007). 시장장치는 “시장의 구성에 개입하는 물질적, 담론적 이상블라주”를 뜻하며(Muniesa, *et al.*, 2007, 2), 컴퓨터, 기술적 알고리즘, 신용점수 산정 기술, 경제학,

금융이론, 경제언론 등 시장관계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물로 구성되고 다양한 행위를 연결한다.<sup>13)</sup> 이런 장치들은 주체성을 발휘하며 스스로 행동하고 다른 것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HFT의 경우, 이것이 원거리 거래를 가능케 할지라도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게 한다(Zook and Grote, 2016). 인간 행위자들이 점점 더 가상적 사회성에 기대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이거래를 위해 촉각을 닦는 데이터의 흐름과 거래가 필수적인 HFT의 컴퓨터 행위자들은 서버와 운영시설이 밀집한 서버 팜(server farm) 인근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술적 행위자의 영향력으로 “공간적 근접성은 부적절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이 [재]조정”되고 있을 따름이다(Zook and Grote, 2016, 123).

가상적 사회성과 관련해서도 물리적 근접성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래자들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런던의 더시티와 같은 글로벌 금융센터는 다양한 시장장치들의 기술적, 물리적, 담론적 네트워크의 결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최고급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글로벌 시장 관계가 네트워크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금융센터의 거래 공간으로 접혀 들어와 행위자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미시적 구조(micro-structures)’의 역할을 하는 이유도 있다(Knorr Cetina and Bruegger, 2002). 그리고 숫자, 문자 등으로 형식화되어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의 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피트(pit)에서 벌어지는 공개호가(open out-cry) 방식과 런던의 선물거래 기업에서 전자거래 행태를 비교·분석한 케이틀린 잘롬의 문화인류학적 연구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런던에서] 금융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은 숫자를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객관적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컴퓨터 스크린 기술을 사용하는 거래인도 공개호가 경매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숫자에 내재된 비계량적인 정보를 획득하려 노력한다. 이들은 사회성을 이용해 [숫자를 통해서만] 해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찾아 나선다.”(Zaloom, 2003,

269; Hall, 2020, 90-91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새라 홀도 계량적 분석 기술이 객관적 방법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 계량화된 금융 내러티브가 일반화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고 때에 따라 정성적 분석 기법에 좌우되는 사실을 발견했다(Hall, 2006).

지금까지 살핀 문화경제지리학적 접근법은 최소한 2가지의 중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Hall, 2010; 2020). 첫째, 문화경제지리학적 연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몰두하여 이루어졌다. 금융 기반의 경제 성장이 탁월하게 나타났던 2000년대에 북미와 서유럽의 글로벌 금융센터, 특히 런던, 뉴욕, 시카고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반면, 극히 일부의 연구를 제외하고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 센터와 글로벌남부의 금융지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4)</sup> 둘째, 문화경제지리학 접근법은 미시적 실천과 과정에 몰두한 나머지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등한시했다. 이것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제학 이론이나 시장장치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이성주의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의 정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Hall, 2010).

정치와 권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문화경제지리학에서 금융과 관련된 차별, 불평등, 빈곤, 억압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금융의 문화경제지리학에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감수성을 요구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Pryke and du Gay, 2007; Hall, 2011; Christophers, 2015). 이런 분위기는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불균등한 지리적 결과의 맥락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각적인 ‘사회-공간적 불평등의 축’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지리정치경제학적 이해와 설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Christophers, 2015).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으며, EU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부

와 동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위기의 부정적 효과는 단일 국가 수준에서 지역 간에도 나타났는데, 영국의 경우 북부와 서부의 구산업 지역에서 실업 증가가 확인했던 반면 런던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 주택 압류는 흑인과 라티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사회-공간적 격차의 인종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제3의 물결: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

금융에 대한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연구의 ‘물(沒)’ 정치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최근의 문화경제지리학적 분석에서는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다(Hall, 2010; 2011; Christophers, 2015). 이는 금융시장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실천을 국가의 제도적 장치, 초국적 규제 조치 등 거시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Hall, 2011; 2020). 중범위 수준의 분석은 미시와 거시 간의 엄밀한 구분과 위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선형적 가정을 부인하고, 둘 사이의 상호구성적 흐름과 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의 정치와 권력에 주목하며 불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금융지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은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지리정치경제학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 지리정치경제학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은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자본의 헤게모니와 노동의 반헤게모니로 이원화된 대립된 구조 속에서 권력을 파악했던 ‘중심화된’ 권력 개념의 부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대신 ‘실천’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두고 ‘창발적 권력(emergent power)’의 현실적인 작용을 이해하려는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Allen, 2004; 이재열, 2016a, 686-687). 중심화된 권력의 개념은 권력을 개인 및 제도적 행위자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 역량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권력은 실질적 행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조직이, 예를 들어 자본가와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 푸코의 영향을 받은 실천 중심의 개념화에서 권력은 특정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분산되어 있고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실천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발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위자가 소유를 하더라도 행사되지 못한 채 잠재된 권력은 실체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향의 개념에서도 잠재적 권력보다 실천적 효과를 중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권력의 자원이 개별 행위자에 내재된 역량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공간적 관계망을 동원하고 집결시켜 실천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자원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관점에서 권력은 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산재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결집시키는 매개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둘째, 금융은 더 이상 생산관계의 부수적인 현상과 과정으로 상정되지 않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파악된다.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토퍼는 “금융을 [경제지리학의] 관심사에서 정면이나 중심에 놓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적 지리정치경제의 구조와 역동성을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Christophers, 2015, 206). 거시적 맥락으로서 금융의 중심화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살필 ‘금융화’에 대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Hall, 2011; Aalbers, 2020; Clark and Monk, 2020; Keenan, 2020). 금융화는 경제, 정치,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금융시장, 금융제도, 금융계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계급의 범주를 넘어서 다각적인 주체화(subjectification)

및 행위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계급의 렌즈만 가지고 현대의 자본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리정치경제학에 대하여 계급을 넘어서는 확장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Christophers, 2015, 209).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관행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계급 뿐 아니라 인종도 개인의 신용도 평가와 대출 약정 조건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민족-종교-금융의 관계망에 주목하며 서구 중심적인 지리정치경제학의 맹점과 한계에 도전하는 노력도 있다(Pollard and Samers, 2007).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금융화의 거시적 맥락과 상호구성되는 다양한 ‘금융주체’의 형성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Hall, 2011; 2020; Lai, 2017).

금융주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금융화의 의미와 구성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화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3가지의 중대한 변화를 재현하는 개념이다(Hall, 2011; Bond, 2020; 박경환 외, 2021). 첫째, 금융화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경제 전반에서 이윤율이 낮아져 저성장이 지속되는 축적체제 속에서 자본의 투자가 생산부문을 이탈해 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금융부문으로 유입된 것과 관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 것도 오늘날 금융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금융화와 관련된 두 번째 중대한 변화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담론의 지배적 이데올로기화 현상이다. 주주가치 담론은 기업의 운영에서 주가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투자자와 소유주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 지역, 노동자, 소비자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했던 기존의 기업 거버넌스 관행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의 가치사슬 및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금융규율(financial discipline)’이 강화되었고 금융은 생산에 대하여 헤게모니적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Yeung and Coe, 2015; Keenan, 2020; 이재열, 2016a).

마지막으로 셋째, 서론에서도 간략히 살폈듯이 금융화는 금융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점점 더 깊숙이 침투해가는 현상을 뜻하기도 하며, 이는 금융화의 다른 어떤 차원보다 주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실제로 현대인의 삶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 주택 구입에서 모기지 금융, 소비재에 대한 할부금융,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민간 연금과 보험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법 및 혁신과 복잡하게 얽혀있다(Hall, 2012; Clark, 2020).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화된 글로벌 금융시스템과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금융주체로 재구성되고 있다(Langley, 2008). 신자유주의적인 탈규제화 정책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금융 혁신 상품이 생겨났고 이것이 일상으로 파고들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부채와 레버리지 지향적인 기업가적 투자의 금융주체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Clark, 2011; Hall, 2011; Lai, 2017). 증권화를 통한 혁신적 파생상품의 증가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이양된 사회·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책임, 금융 리터러시(literacy) 담론 및 실천의 확산, 신용점수 산정 기술의 일상화 등도 신자유주의적 금융주체화 과정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 마디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주체는 “자신의 복지 욕구와 금융 안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 행위자라 할 수 있다(Lai, 2017, 916). 이러한 ‘투자자 주체’는 기존의 수동적인 ‘저축인 주체’와 구분되며,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후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보험, 연금과 같은 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의 책무가 탈규제화와 민영화를 통해서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해 개인 수준으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주체화에 대한 문화정치경제지리학적 분석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Lai, 2017; Hall, 2020). 크리스토퍼는 이를 ‘확장성의 지리정치경제학’으로 칭하기도 했는데(Christophers, 2015), 여기

에서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푸코는 국가와 국가가 동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행위의 규율과 사회 통제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통치성 개념으로 논했다(Foucault, 1991). 그러면서 국가의 개입과 지배를 위해 구성된 기술로서 일상적 실천을 이해했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자율 규제하는 인간 ‘주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푸코의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주체화 과정은 개인의 자유의지나 계급의식으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국가 권력이 사회적 실천으로 발현되며 생성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통치성은 “국가 권력이 일상적 실천 및 주체 형성 과정으로 확장” 되는 과정을 뜻한다(이재열, 2016b, 273).

경제지리학자들은 통치성 개념을 활용해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구성되는 일상적 실천과 기술에 주목한다(Larner, 2003). 특히, ‘개인책임’이나 ‘자족(自足)’과 같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국가 중심적인’ 푸코의 개념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권력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이해를 도모하면서(Allen, 2004),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신자유주의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벌이는 경쟁, 경합, 협상, 저항의 과정도 중시한다(Barnett, 2005; 이재열, 2016b). 이런 관점에서 클라이브 바넷은 “거버넌스, 정책, 규제 양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회·문화적 과정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헤게모니적인 “신자유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Barnett, 2005, 10; 이재열, 2016b, 272 재인용). 금융지리에 대한 통치성 연구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규율의 주체화에 순응하는 과정 뿐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을 부각한다(Coppock, 2013, 479). 금융 상품과 금융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투자자 주체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실에서는 모순적인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Lai, 2017; Clark, 2020).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다각적인 양상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푸코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Hall, 2011; 이재열 2016b).

금융지리학에서는 금융주체화의 공간적 맥락과 장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비금융 부문과 금융 엘리트에 분석적 관심이 집중된다(Hall, 2011). 우선, 소비금융 부문에서 금융주체화 과정을 파악하며 금융배제의 문제가 성찰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1990년대 금융배제에 연구는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에 집중된 은행 지점 폐쇄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의 악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2절 참조), 보다 최근의 소비금융 업무에서 실천 관행에 대한 연구는 신용의 평가, 거래의 조건, 가격의 책정, 마케팅 전략, (인종, 민족, 젠더 등) 신체의 구성 등과 관련된 배제 및 포섭의 매커니즘도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레이션 외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주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소비금융 업무 관행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중적으로 공간화된 금융주체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Leyshon *et al.*, 2008). 중산층 생태계에서는 금융 리터러시를 향유하는 주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이익을 누린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생태계에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류 금융기관의 이탈이 발생하고 이런 공백은 보다 착취적인 금융업체와 금융상품들로 채워진다. 2008~2009년 금융위기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시장을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Wyly *et al.*, 2009; Kear, 2013; Christophers, 2015). 안정된 소득이 신용평가의 중요한 기준인 '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배제된 비백인(non-white) 중심의 사회-경제적 약자층 생태계의 공간이 고위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권한박탈로서 배제'와 함께 '착취로서의 포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hristophers, 2015). 한 마디로, '금융포섭(financial inclusion)'의 주체도 금융을 통한 사회-공간적 불평등의 또 다른 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엘리트 금융주체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는 특정한 장소의 맥락 속에서 성공적 금융인에 대한 담론과 엘

리트 금융주체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홀은 투자은행 금융주체 형성에 있어서 경영대학원 교육이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주체화 과정이 글로벌 금융센터의 직장문화와 얽히게 되면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Hall, 2011). 이러한 사회-공간적인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센터의 투자기관과 금융인 사이에서 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금융상품 혁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 엘리트에 대한 고든 클락의 설명은 학문적 담론의 영향력보다 지리적 착근성에 보다 큰 무게를 둔다(Clark, 2011). 그에 따르면, 금융 엘리트의 '근시안적인' 위험 감수 관행은 주류 금융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글로벌 금융센터에 착근한 조직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보다 최근에는 '대안적 형태의 엘리트 금융주체의 출현에 대한 관심도 일기 시작했다(Follard and Samers, 2007; Kish and Fairbairn, 2018; Langley, 2020).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융 수익을 넘어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를 뜻하는 '임팩트(impact)' 투자의 담론과 문화가 경영학계, 금융계, 정치권, 정책기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Langley, 2020, 429), 이런 맥락에서 '윤리적 투자자 주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Kish and Fairbairn, 2018). 임팩트 투자의 의도, 과정, 결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 글로벌남부 개발원조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투자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핵심 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6. 결론: 요약 및 토론

금융지리학은 고정된 담론과 실천에 의존한 정적인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

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보다 최근에는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존 문화경제지리학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권력과 정치의 공백은 신프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우리는 의도적으로 ‘물결’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했다. 후행의 금융지리학 담론이 선행의 것을 대체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큰 물결들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

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쟁·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표 1). 첫 번째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잉축적에 대응한 시·공간적 조정의 과정으로서 금융화를 이해하며 도시의 건조환경 형성과 불균등발전의 구조적 필연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 문화경제지리학의 두 번째 물결을 통해서 금융지리학자들은 고려하는 행위자의 대상을 비인간까지 확장했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금융을 둘러싼 담론, 실천, 사회-기술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구조 및 경제 결정론을 탈피해 공간과 장소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했다. 가장 최근의 세 번째 물결 덕분에 금융상품 소비자나 금융 엘리트의 일상적 담론과 실천을 탐구하여 금융주체화와 권력의 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지리정치경제학과 다른 방법으로 금융의 정치와 권력을 탐구하는 새로운 양식의 지리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금융지리 연구 학풍을 비교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각

표 1. 금융지리학 담론 형성의 주요 물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등장 시기	1970~1980년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학문적 분과	지리정치경제학	문화경제지리학	문화경제지리학 지리정치경제학
사상적 기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구조주의 (ANT, 수행성)	포스트구조주의 (ANT, 수행성, 통치성)
분석의 수준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중범위 수준의 분석
분석의 대상	자본 축적 과정 건조환경의 형성	아장스망, 아상블라주 담론과 실천	권력의 작용과 주체화 일상생활
주체의 인식	계급 (자본 vs. 노동)	인간-비인간 행위자 담론의 수행과 실천	금융주체 (소비자, 엘리트)
권력과 정치	중심화된 권력(자본) 계급 정치	권력 논의 미흡 정치 고려 미흡	창발적 네트워크 권력 (실천, 통치성, 주체화)
금융화	생산자본의 부산물 시·공간적 조정의 수단	사회-기술적 장치 사회-문화적 과정	경제활동의 핵심 동력 주체화의 요소
금융의 지리	착취와 억압의 공간 불균등발전	네트워크의 공간 장소의 행위주체성	네트워크의 공간 장소의 행위주체성

출처: 2~5절의 논의를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자 선호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본질적 우월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3절에서 언급했던 일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점에 대한 선호는 “우연한 마주침”들 속에서 선택적으로 생성되고 습관적으로 고착화되어버린 경로의존적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관점 간의 어색한 절충주의를 추구할 이유도 없다. 2000년대 중반 하비와 쓰리프트 간의 ‘좌파’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Harvey, 2006; Amin and Thrift, 2007),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문화경제지리학은 다분히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경험 연구에서 활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주

- 1) <http://www.fingeo.net/> 참조.
- 2)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9781118786352.wbieg0656> 참조.
- 3) 에릭 쉐퍼드에 따르면, 지리정치경제학은 3가지 핵심 주장을 기초로 한다(Sheppard, 2011). 첫째, 자본주의는 경제적 활동을 조직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고, 자본주의 너머의 대안적인 형태의 경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둘째, 지리는 경제의 외부적인 요소라 할 수 없다. 지리와 경제는 사회-공간의 변증법의 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셋째, 경제적 과정은 생태적,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과정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공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4) 레드라이닝은 빈민과 소수민족이 밀집한 도시의 특정 구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도가 높다거나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말하며, 블록버스팅은 중산층 가구의 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매가를 고의로 낮추어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지로 변화시키는 관행을 뜻한다(류연택, 2020, 276-277). 두 가지 모두는 내부도시의 쇠락을 유도해 추후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 5) 마르크스주의 금융지리학의 주요 관심사는 5가지로 - ① 금융과 생산적 자본 간의 관계, ② 다양한 스케일에 발생하는 금융화, ③ 공간 및 스케일 간에 나타나는 금융의 통제와 투기 기능 ④ 위기에 대처하는 금융 전략 ⑤ 금융 권력에 대한 사회적, 규제적 저항 - 요약할 수 있다(Bond, 2020, 65).
- 6)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과잉축적에 대한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절하’ 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대공황, 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서 기존의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축적의 과정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 7) 패트릭 본드는 부채, 증권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외부 자금원”으로서 금융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용(accommodating), 통제(controlling), 투기(speculation)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Bond, 2020, 59-60). ‘수용’은 투자나 신용의 수단을 활용해 보다 균등한 재분배를 촉진하며 위기를 방지하고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은 집중된 자본을 기초로 지배적 권력이 발휘하며 금융시장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통제의 기능, 증권, 파생상품, 암호화폐 등 생산적 유용성의 기초가 부실한 금융자산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투기’의 기능도 수행한다. 본드에 따르면, 과잉축적이 명백해져서 생산적인 경제 부문에서 이윤율이 급락하면, “자본가들은 공장, 설비, 노동력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도피처로 활용한다.”(Bond, 2020, 63)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의 역할은 수용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통제와 투기의 기능이 우월해지며 불균등발전도 심화된다.
- 8) MBO는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로, 기업의 전부나 일부를 경영진 개인이나 집단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은 매수 경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에 참여한다.
- 9) 문화경제지리학에서 실천에 대한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Jones and Murphy, 2010b). 첫째는 집단적 학습과 조직적 일체감을 촉진하는 실천인데, 여기에서는 암묵지의 역할이 강조된다. 기업, 실천 공동체,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학습지역 등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분석에서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담론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며, 담론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수행성’ 분석이 이런 관심사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실천을 통해서 경제, 문화, 사회, 국가 등을 조직화, 구조화하여 지배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치성’ 분석에서 주목받고 있다.
- 10) 이상스망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된 배치의 상태를 말하며, 안정성과 창발적인 변형가능성 모두를 내포한 ‘사회기술적 배열(sociotechnical arrangements)’의 역동성을 포착한 개념이다. 이상스망에서 파생된 이상블라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사회-공간적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용어이지만, 이상스망에 비해 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 행위주체성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Lai, 2017).
- 11) 증권화는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미래 채무의 풀을 구성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증권으로 전환하는 금융 엔지니어링의 과정으로 정의”된다(Keenan, 2020, 1295).
  - 12) 주식이나 파생상품 가격의 미세한 변동을 이용해 100분의 1초보다 빠른 속도의 시간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단타매매의 성패는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성능에 좌우된다.
  - 13) 과학기술 사회학자 도널드 맥켄지(Donald MacKenzie, 2006)는 경제학의 수행적 역량으로 금융시장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경제학적 지식이 금융시장의 모습을 반영하는 카메라와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켄지는 금융시장에서 옵션가격결정이론(option pricing theory)을 활용하면 이 이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의 패턴이 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14) 이슬람 금융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분석은 서구 중심의 금융지리 연구 동향의 예외라 할 수 있다(Maurer, 2003; Pollard and Samers, 2007). 이런 연구에서는 이슬람 금융 성장에 주목하고 이슬람과 서구 금융 시스템 간의 얽힌 관계를 강조하며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으로서 기존 금융지리 담론의 서구중심적인 부분성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 이재열, 2016b, “경합적 실천으로서 도시 공동체: 일상 실천과 시민사회 옹호 담론 간의 간극,” *대한지리학회지* 51(2), pp.269-283.
- 이희연, 2018, *경제지리학*, 서울: 법문사.
- 조선일보, 2021,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안정성이나... 투자 기본옵션 논쟁.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6/26SVLMUDGFEC5DKASHWRBB4SHU/](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6/26SVLMUDGFEC5DKASHWRBB4SHU/)(최종열람일: 2021년 2월 28일)
- 최재현, 1995,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 금융부문의 제도적 변화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0(4), pp.364-389.
- 한국경제, 2021a, 개인형 퇴직연금 아직도 없으십니까... 여기가 IRP 맞잡.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457241>(최종열람일: 2021년 2월 28일)
- 한국경제, 2021b, 작년 비보장 IRP 수익률 13%... 75%는 원금 보장형에서 낮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34593i>(최종열람일: 2021년 2월 28일)
- 헤럴드경제, 2021, IRP, 연령별·소득수준별 세제혜택 차등 적용 해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220000109>(최종열람일: 2021년 2월 28일)
- Aalbers, M. B., 2015, “Financial geography: Introduction to the virtual issu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0(2), pp.300-305.
- Aalbers, M. B., 2018, “Financial geography I: Geographies of tax,”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pp.916-927.
- Aalbers, M. B., 2019, “Financial geography II: Financial geographies of housing and real estat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2), pp.376-387.
- Aalbers, M. B., 2020, “Financial geography III: The financialization of the c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4(3), pp.595-607.
- Allen, J., 2004, “The whereabouts of power: politics, government and spac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pp.19-32.
- Amin, A. and Thrift, N., 2007, “On being politica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1), pp.112-115.

## 참고문헌

- 김창현, 2014, “공간생산의 금융화: 금융지리학의 관점에서,” *공간과 사회* 49, pp.110-143.
- 류연택, 2020, “도시 주거와 도시재생,” *한국도시지리학회 엮음, 도시지리학개론*, 서울: 법문사, pp.255-293.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57-78.
- 박경환·권상철·이재열 율김, 2021, *경제지리학개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MacKinnon D. and Cumbers, A., 2019, *An Introduction to Economic Geography: Globalisation, Uneven Development and Place*, London: Routledge).
- 이재열, 2016a,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의 진화: 기업 및 산업 중심 거버넌스 분석을 넘어서,” *대한지리학회지* 51(5), pp.667-690.

- Anderson, B. and McFarlane, C., 2011, "Assemblage and geography," *Area* 43(2), pp.124-127.
- Barnett, C., 2005, "The consolations of "neoliberalism"," *Geoforum* 36(1), pp.7-12.
- Boddy, M. J., 1976, "The structure of mortgage finance: Building societies and the British social form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 pp.58-71.
- Bond, P., 2020, Foundations of Marxist Financial Geography, in Knox-Hayes, J. and Wójcik, 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56-83.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London: Routledge.
- Callon, M. and Muniesa, F., 2005, "Peripheral vision: Market as calculative collective devices," *Organizational Studies* 26(8), pp.1229-1250.
- Castree, N., 2004, "Economy and culture are dead! Long live economy and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2), pp.204-226.
- Christophers, B., 2014, "Geographies of finance I: Historical geographies of the crisis-ridden pas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2), pp.285-293.
- Christophers, B., 2015, "Geographies of finance II: Crisis, space and political-economic transform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2), pp.205-213.
- Christophers, B., 2016, "Geographies of finance III: Regulation and 'after-crisis' financial futur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1), pp.138-148.
- Clark G. L. and Thrift, N., 2005, "The Return of Bureaucracy: Man Aging Dispersed Knowledge in Global Finance," in Knorr Cetina, K. and Preda, A.(eds.), *The Sociology of Financial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229-249.
- Clark G., Thrift, N. and Tickell, A., 2004, "Performing finance: the industry, the media and its imag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2), pp.289-310.
- Clark, G. and Monk, A., 2020, Long-Term Investment Management, in Knox-Hayes, J. and Wójcik, 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263-285.
- Clark, G. L., 2011, "Myopi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ext-specific reasoning, market structure, and institutional governance,"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1), pp.4-25.
- Clark, G. L., Feldman, M. P., Gertler, M. S. and Wójcik, D.(eds.), 2018, *The New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G., 2020, Knowledge, Experience,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in Knox-Hayes, J. and Wójcik, 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286-307.
- Coe, N. M., Kelly, P. F. and Yeung, H. W., 2020,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Oxford: Wiley.
- Coppock, S., 2013, "The everyday geographies of financialization: Impacts, subjects and alternativ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6(3), pp.479-500.
- Corbridge, S., Martin, R., and Thrift, N.(eds.), 1994, *Money, Power, Space*, Oxford: Blackwell.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Burchell, G., Gordon, C. and Miller, P.,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87-104.
- Fryer, D. W., 1987, "The political geography of international lending by private bank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2, pp.413-432.
- Hall, S., 2006, "What counts? Exploring the production of quantitative financial narratives in London 's corporate financ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5), pp.661-678.
- Hall, S., 2010, "Geographies of money and finance I: Cultural economy, politics and pl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2), pp.234-245.
- Hall, S., 2012, "Geographies of money and finance II: Financialization and financial subjec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3), pp.403-441.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2006, "The geographies of cr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4), pp.409-412.
- Ho, K., 2009, *Liquidated: An Ethnography of Wall Stree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Jones, A. and Murphy, J. T., 2010, "Practice and economic geography," *Geography Compass* 4(4), pp.303-319.
- Jones, A. and Murphy, J. T., 2011, "Theorizing practice in economic geography: Foundation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3), pp.366-392.
- Jones, A., 2014, "Geographies of production I: Relationality revisited and the 'practice shift'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4), pp.605-615.
- Jones, J. P., Woodward, K. and Marston, S. A., 2007, "Situating flatnes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2), pp.264-276.
- Kear, M., 2013, "Governing homo subprimicus: Beyond financial citizenship, exclusion, and rights," *Antipode* 45(4), pp.926-946.
- Keenan, L., 2020, "Financialization, securitization, and the decline of pubs in Britai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0(6), pp.1293-1311.
- Kish, Z. and Fairbairn, M., 2018, "Investing for profit, investing for impact: Moral performances in agricultural investment projec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50(3), pp.569-588.
- Knorr Cetina, K. and Bruegger, U., 2002, "Global micro-structures: the virtual societies of financial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pp.905-950.
- Knox-Hayes, J. and Wójcik, D.(eds.), 2020,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 Lai, K. P., 2017, "Unpacking financial subjectivities: Intimacies, governance and socioeconomic practices in financializ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35(5), pp.913-932.
- Langley, P., 2008,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Saving and Borrowing in Anglo-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ley, P., 2020, Impact Investors: The Ethical Financialization of Development, Society and Nature, in Knox-Hayes, J. and Wójcik, D.(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328-351.
- Larner, W., 2003, "Neoliber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21(5), pp.509-512.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ulajainen, R., 1999, "Money and the space econom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1(2), pp.127-129.
- Leyshon, A. and Thrift, N. J., 1997, *Money/Space: Geographies of Monetary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Leyshon, A. and Thrift, N., 1995, "Geographies of financial exclusion: Financial abandonme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0(3), pp.312-341.
- Leyshon, A., 1995, "Geographies of money and finance 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4), pp.531-543.
- Leyshon, A., 1997, "Geographies of money and finance I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3), pp.381-392.
- Leyshon, A., 1998, "Geographies of money and finance II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3), pp.433-446.
- Leyshon, A., 2000, Money and Finance, in Sheppard, E. S. and Barnes, T. J.(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London: Blackwell.
- Leyshon, A., French, S. and Signoretta, P., 2008, "Financial exclusion and the geography of bank and building society closure in Britai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4), pp.447-465.
- Martin, R. (ed.), 1999, *Money and the Space Economy*, Chichester: Wiley.
- Maurer, B., 2003, "Uncanny exchanges: the possibilities of 'making change' with alternative monetary forms," *Environment and Planning D* 21(3), pp.317-340.
- McDowell, L. 2010, "Capital culture revisited: Sex, testoster-

- one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3), pp.652-658.
- McDowell, L., 1997, A Tale of Two Cities? Embedded Organizations and Embodied Workers in the City of London, in Lee, R. and Wills, J.(eds.),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Arnold, pp.118-129.
- Muniesa, F., Millo, Y., and Callon, M., 2007, “An introduction to market devices,” *The Sociological Review* 55(2), pp.1-12.
- Olds, K. and Thrift, N., 2005, Cultures on the Brink: Reengineering the Soul of Capitalism – On a Global Scale, in Ong, A. and Collier, S.(eds.), *Global Assemblage*, Oxford: Blackwell, pp.270-290.
- Peck, J., 2001, *Workfare States*, New York: Guilford Press.
- Pike, A., 2006, “‘Shareholder value’ versus the regions: the closure of the Vaux Brewery in Sunderland,”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 pp.201-202.
- Pollard, J. and Samers, M., 2007, “Islamic banking and finance: Postcolonial political economy and the decentring of economic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 pp.313-330.
- Pryke, M. and du Gay, P., 2007, “Take an issue: cultural economy and finance,” *Economy and Society* 36(3), pp.339-354.
- Pryke, M., 1991, “An international city going ‘global’: Spatial change in the city of Lond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9(2), pp.197-222.
- Sheppard, E., 2011,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2), pp.319-331.
- Smith, N., 1990, *Uneven Development*,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Thrift, N. and Olds, K., 1996, “Refiguring the economic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3), pp.311-337.
- Thrift, N., 1994, On the Social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The Case of the City of London, in Corbridge, S., Martin, R., and Thrift, N.(eds.), *Money, Power, Space*, Oxford, Blackwell, pp.327-355.
- Tickell, A., 2003, Cultures of Money, in Anderson, K., Domosh, M., and Thrift, N.(eds.),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 pp.116-130.
- Williams, P., 1976, “The role of institutions in the inner London Housing market: The case of Islingt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1), pp.72-82.
- Williams, P., 1978, “Building societies and the inner cit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 pp.23-34.
- Wyly, E., Moos, M., Hammel, D., and Kabahizi, E., 2009, “Cartographies of race and class: Mapping the class-monopoly rents of American subprime mortgage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3(2), pp.332-354.
- Yeung, H. W. C. and Coe, N., 2015, “Toward a dynamic theory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Economic Geography* 91(1), pp.29-58.
- Zaloom, C., 2006, *Out of the Pits: Traders and Technology from Chicago to Lond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Zook, M. and Grote, M. H., 2017, “The microgeographies of global finance: High-Frequency trading and the construction of inequ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49(1), pp.121-140.
- 교신: 박경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법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62-530-2385, 이메일: kpark3@gmail.com
- Correspondence: Kyonghwan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385, E-mail: kpark3@gmail.com

최초투고일 2021년 02월 28일  
수정일 2021년 03월 10일  
최종접수일 2021년 03월 20일